

1. 온라인 예배,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예배는 꼭 교회에 모여서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팬데믹을 지나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면 혹은 비대면이라는 형식 자체가 예배의 본질인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적 삶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경계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한 자리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기도하며,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시간에 화면으로 연결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 찬양하고, 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통해 공동체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대면 예배가 가진 소중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나 대면하여 모이는 행위 그 자체를 예배의 본질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오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를 예루살렘이나 그리스 산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묶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선언하셨습니다(요 4:23-24). 예배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특정한 건물이나 외형적 형식에 갇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 장에서 우리의 예배를 삶 전체로 확장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주일 날 교회당에 앉아 드리는 한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터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고,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며, 물질과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그 모든 삶의 걸음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나 특수한 근무 환경,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개인의 편리함이나 선호를 이유로 공동체적 모임을 너무 쉽게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모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모여야 한다”거나 “온라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이 아닐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편의를 내려놓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고, 반대로 대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비대면을 통해서도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된다면 교회는 마땅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성실히 돌보아야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면인가, 비대면인가?”라는 외형과 형식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져야 할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 무엇을 예배하고 있으며,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교회당의 불이 꺼졌다고 해서 우리 안의 예배의 불꽃까지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당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저절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흠어져서 그 예배를 살아냅니다. 모이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흠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이어갑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_____

-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흠어져서 그 예배를 살아냅니다.”라는 말처럼, 최근 나의 삶에서 예배가 실제 삶으로 이어졌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_____
-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면서 경험했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 _____
- 온라인 예배가 '편리한 예배'로만 변질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 _____
- 이번 주 내가 일터와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예배'로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일 한 시간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편리함보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그 예배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